

## ‘Never Stop Learning’ 정신으로 2021년을 맞이한다

- 농장 생산성적 향상의 핵심은 후보돈 ... 관리기술 숙지한 ‘후보돈 전문가’ 양성 필요해
- 전 세계 2위 규모 양돈기업으로 부상한 중국 무연식품 ... 모든 8만4천두 규모 양돈장 신축 중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명예교수 주한수 박사 초청, ‘미래양돈포럼 세미나’에서 밝힌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29일 파란만장 한 2020년을 정리하고 희망과 혁신의 2021년을 위한 ‘미래양돈포럼 세미나’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됐다. 양돈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와 양돈 2세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도드람양돈농협 양돈연구소 고문, 중국 무연식품 자문위원으로 재임 중인 주한수 박사를 초청하여 중국·미국의 최근 양돈산업 동향과 기술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 한 수 박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명예교수

### ■ 중국·미국의 최근 양돈산업 동향과 기술

이날 주한수 박사는 보유한 돼지두수의 규모에 따라 양돈기업의 세계적인 순위를 매기는 ‘Global Mega Producer’를 소개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34개 Mega Producer(대형 생산업체)에서 1,150만마리가 넘는 암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중국 무연식품(Muyuan foods)은 전년 대비 두 배로 규모를 늘려 2019년 4위에서 2020년 2위로 뛰어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 무연식품은 6층짜리 21개 건물로 된 모든 8만4천두 규모의 세계 최대 양돈장을 신축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9월에 21개 건물 중 첫 번째 건물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매년 약 210만마리의 돼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특히 모든 건물의 전 돈사에 에어필터를 설치하여 청정한 공기를 주입하는데, 중국은 ASF, 대기오염 등으로 에어필터시스템(Air filtration)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동서부에서도 많은 모돈농장이 PRRS 차단을 목적으로 에어필터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 75℃에서 15분 동안 수송차량에 열을 가해 바이러스나 유해 세균을 사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장에 유입된 공기가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서 UV light를 쬐이거나 Ceiling fan을 통한 살균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양돈산업의 경우 생산 분야에서는 지난 7~8년 전부터 PSY가 2~3두 늘었다. 사양관리 및 후보돈 관리 등 기술이 발전했으며, 특히 사료 자동급이기의 발전·도입으로 포유기간 동안 사료를 자동으로 무제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체형을 잘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됐다.

## ■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후보돈 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보돈 전문가 양성 필요

한편 주한수 박사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후보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수 박사는 “생시체중이 높은 후보돈이 오랫동안 번식할 수 있으며, 후보돈의 체장이 짧을수록 자돈의 생존율이 높다. 또한 후보돈 24주령부터 웅돈 접촉을 시작하되 조기 발정군(210일령 이하)을 우선적인 모돈 갱신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

주한수 박사는 주의사항으로 “간혹 후보돈을 300일까지 키우면서 끝까지 발정이 오도록 하는 농장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두 번 새끼를 낳고 도태할 수 있다”며 “초교배 체중이 160kg이 넘을 경우 평생 동안 그 높은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만큼 후보돈의 체중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후보돈 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보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한수 박사는 “중국의 코로나19가 심각해도 세미나장이 가득 찰 정도로 중국 양돈업 종사자들의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강하다”며 “2021년 ‘Never Stop Learning’의 정신으로 우리나라 양돈인들이 하나씩 배우고,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정리 / 박지아 기자】